

“가장 완벽한 설치예술은 변화무쌍한 ‘구름’ ”

데이비드 B. 장 작가

‘삶은 색(色)과 공(空)의 윤회(輪廻)?’

인간은 결국 죽음에 이른다. 삶의 결말에서 남기는 인간의 생존과 생명만기의 흔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다각적 관점- 생물학적, 사회적, 기계공학적, 심리적, 자연현상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을 작가는 ‘Life Tactic(생활전술)’으로 명명한다. 생존이란 에너지를 매개체로 지속적인 질서의 유지와 변형을 필요로 하는 재생산력(Reproducibility)을 말한다.

사람의 몸에서 이루어지는 생체반응 또한 통제, 규제, 생성, 변경의 양상을 변화무쌍하게 보여준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과 유연성의 한계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이르는 만기라는 개념에 귀착한다. 이는 물질의 변형과 퇴화가 인간의 생존질서와 삶의 유지기술 속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

세상은 사물의 집합체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얻는가 하면 잃고 만들어짐과 동시에 소멸하는 어떠한 무상개념(Impermanence)의 지속적이고도 지배적인 이벤트의 집합체이다.

작가는 현대사회의 생산공기 시스템을 무작위적이고(random) 기회주의적(opportunistic)이며 뒤집기의 가변성(reversible and irreversible), 통제의 유무성(controllable and uncontrollable)을 특



Prevaricate(extended), 183" x344" x118" (dimensions variable), electric fan, trimmer line, cpu fan, motion sensor and custom circuit board, 2014-2019

징으로 한다고 말한다. 거기에 인간 내면에서 끓어 오르는 충동적 욕망을 끊임없이 표출하는 현대인의 상징성을 인간 행동방식에 빚대어 풀어내고자 한다.

작가는 가장 완벽한 설치 예술을 ‘구름’이라고 정의한다. 공간을 채우다가 하면 곧 흩어져 다시 모이고, 바람과 함께 비바람을 동반하기도 한다. 변화무쌍하면서 액체, 기체, 고체 어떠한 형태로든지 지속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완결적이지도 않은 구름이야말로 다양한 에너지 활용을 운동성과 소리, 빛 등

과 결합해 여러 가능성으로 선보이지만 그 어떠한 작품도 최종 형태로 귀결되지 않는 것도 작가의 작업관이기도 하다.

정리=김문호기자

· 데이비드 B. 장 작가는

서울 출신으로 현재 LA에 거주하고 있다. 13살 때 미국에 왔다.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 있는 College of Visual Arts에서 Sculpture and Painting을 전공했다. 2015년부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꾸준히 개인 및 그룹전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중이지만 지난해에도 캘스테이트 샌버나디노 미술관, LA백스 페이스, 한국 창원에 있는 에스빠스 리좀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했고, 헌팅턴비치 코스트라인갤러리, 한국 김포 CICA미술관에서 그룹전을 할 만큼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작가의 주요 작품들은 LA시현대미술관(MOCA), 라구나비치 라구나미술관, LA명품펜다관, LA카운티미술관(LACMA) 등에서 소장하고 있을 정도로 예술성을 평가 받고 있다.